

차별은 제도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을 때 더 깨기 어렵습니다. 어느덧 공기처럼 익숙해진 차별을 걷어내려면 이러한 질서를 공고하게 만든 제도적 환경은 무엇인지 둘러보고 손질해야 하는 상황도 분명 생깁니다.

가장 선연하게 떠오르는 사건은 비교적 최근 일인데요. 지난 4월 20일 CU 편의점 물품을 배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인 CU를 상대로 대화를 요청하던 중, 대체 배송 차량 운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측과 경찰에 의해, 멀리까지 연대하러 갔던 컨테이너 화물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노동자를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간 이번 참극에도 제도적 차별이 근저에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기는커녕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노란봉투법을 넘어서 상황”이라며 선을 긋는 고용노동부의 태도에 맨 먼저 가슴을 쓸어내린 건 아마 CU였겠지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통상적인 노사관계의 범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신호를 정부 쪽에서 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로 새겨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그동안 정부가 용인하고 제도가 뒷받침했던 차별을 “지금, 여기서 멈추자”라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평등을 향한 요구와 다짐을 실현하는 것은 비단 일터 안에서의 과제만이 아닐 텐데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도 이러한 고민과 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각자의 고유함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공동체,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연구소는 이러한 고민을 담아 「반성폭력 내규」 제정 논의를 지난 9개월여 동안 지속해 왔고, 2026년 4월 11일 드디어 내규 제정에 이르렀습니다. 5월 14일(목) 저녁 7시에는 내규 제정의 맥락, 성평등한 조직활동을 위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 사건 접수 방법과 이후 절차 등을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한노보연 반성폭력 내규 회원 설명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기다리겠습니다!

**반성폭력내규
회원설명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26년 4월,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했습니다. 성폭력·성차별을 용인하지 않고, 피해자 관점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내규 제정의 맥락, 성평등한 조직활동을 위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 사건 접수 방법과 이후 절차 등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19시, 온라인 줌
- 대상** 한노보연 회원 누구나
- 발제** 손진우 (한노보연 소장)
 - 발제 이후 회원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합니다.
 - 전문은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면 볼 수 있습니다.